

“악성 민원서 공무원 보호” 실명 비공개 확산

광주시 등 광주·전남 지자체, 홈페이지 직원명 공개 안해

김포 공무원 사망 영향... “민원 책임감 줄어들라” 우려도

공무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광주·전남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실명이 비공개 조치되는데 따라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다.

특정 인물을 표적삼아 민원을 넣는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들을 해방시킬거란 기대감도 있지만 민원에 대한 책임감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무원 악성민원은 지난 3월 김포의 한 공무원이 도로 보수 공사 후 악성 민원의 표적이 돼 온라인상의 괴롭힘으로 숨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이달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골자는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홈페이지 상 공무원 실명을 비공개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민원인이 욕설과 협박 등 폭언을 할 경우 우회화를 종료할 수 있고 종결 가능한 민원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13일 광주·전남지역 29개 자치구에 따르면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실명을 비공개처리한 지자체는 8곳이다.

광주는 광주시와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이며

전남은 보성과 나주, 화순군이 해당한다.

먼저 광주시는 10일 행안부 공문에 따라 비공개 조치를 취했다. 서구 역시 같은날 전환 조치했다. 남구도 13일 내부 논의를 거쳐 비공개 결정했다. 5개구 중 가장 먼저(5월 8일) 비공개로 전환한 북구는 민원여권과 등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민원에 따라 노조의 교섭요구안으로 제안되기도 했다. 광산구는 9일 시행했다.

5개구 중 유일하게 비공개 조치하지 않은 동구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홈페이지에 실명을 밝혀왔던 만큼 다각도에서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보성은 지난 4월 17일, 화순도 이달 비공개 처리했으며 나주는 10일 팝업창을 통해 ‘공무원 인권 보호 및 악성 민원 근절’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할 것을 밝혔다.

비공개 조치에 따라 공무원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행 초기라 악성 민원이 줄어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슷한 종류의 민원이나 장기화된 민원의 경우 민원인들이 담당 직원의 이름과 번호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안이 달라지거나 새로운 정책이 도입됐을 때 그 효과가 도드라질 것이라는 기대다.

또 도서관 홈페이지나 구 의회, 구 시설관리공단 등은 별개로, 지자체와 동사무소 홈페이지만 조치돼 자치구들은 추가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홈페이지 외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있는 청 내 실과마다 설치된 조직도에 대한 조치도 점진적으로 이뤄진다. 광주시는 1층 민원실은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직도를 비공개로 처리하지만 방문 목적을 밝히고 출입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출

입이 가능한 청사와 부서 내부에는 비공개 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남구와 광산구는 사진을 내리고 이름만 표시할 계획이며 서구와 북구의 경우 구 체적인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실명 비공개 조치는 공무원들의 민원 해결에 있어 책임감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공무원들도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공무원인데, 역할이 역할이만큼 공무원들의 애로사항만 토로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광주시 북구 임동에 사는 김모(30)씨는 “조직도에 걸린 사진은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홈페이지에서 이름까지 내려버리면 민원 해결에 따른 책임감도 덩달아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했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자연재해 예방 위해 노후간판 철거 광주시 북구청 광고물관리팀과 옥외광고물협회 직원들이 13일 오전 동림동의 한 아파트 상가 외벽에서 여름철 강풍호우 등의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노후간판을 철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09

광주고검장에 신봉수...광주지검장에 이종혁

신봉수(54·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이 광주고검장직에, 이종혁(57·30기)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광주지검장직으로 보임됐다.

구승모(49·31기)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법무부가 13일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오는 16일이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의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는 이창수(53·30기) 전주지검장이 보임됐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전무근(51·31기) 성남지검장이 맡는다.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김태은(52·31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부임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송강 인천지검장(50·29기)이 임명됐고, 임관역 대전고검장(58·26기)은 서울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는 김창진(49·31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이 승진 보임됐다.

원주 출신인 신봉수 광주고검장은 건대법대를



신봉수 광주고검장 이종혁 광주지검장

졸업한 뒤 서울 북부지청, 대전·광주·서울중앙·의정부 검사, 광주지검 특수부장, 해남지청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종혁 광주지검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인천·대구·광주지검 검사,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장검사, 대검 형사2과장·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 서울고검 차장 등을 거쳤다.

한편 홍승욱(51·사법연수원 28기) 광주고검장과 박종근(56·사법연수원 28기) 광주지검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5·18 이후 수십 년 만에...조선대, 5월 대동제 연다

27~29일...“오월 정신 슬픔 넘어 축제로 승화해야”

조선대가 올해 수십 년 만에 5월 대동제를 개최한다.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5월에는 광주지역 대학 축제가 열리지 않는 관례가 깨뜨려진 것이다.

일부에서는 오월 축제에 대해 아쉽다는 의견과 함께 미래세대인 대학생에게는 5·18이 그만큼 멀어졌다는 방증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반대로 이제는 오월 정신을 애도하는 것이 슬픔에 그치지 않고 축제의 한 장으로 승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13일 조선대에 따르면 조선대 제37대 총학생회

‘시선’과 학생처가 주관하는 ‘조선대학교 대동제’가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조선대 대운동장에서 열린다.

가수 싸이와 다이아믹듀오 등 3일간의 축제 초청 가수 라인업도 총학생회 SNS 등을 통해 공개됐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광주지역 대학들은 가족이나 친지, 또는 대학 동기, 선배들의 회생을 추모하기 위해 타 지역 대학과는 달리 5월 축제는 진행하지 않았다.

전남대의 경우 개교기념일인 6월 9일을 기념해 6월에 대동제를 개최해 왔지만, 지난 1991년 4월

박승희 열사 분신 이후 가을인 9월로 미뤘다.

조선대 총학생회 시선은 “그동안 5·18로 인해 가을에 축제를 열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신입생들의 중도이탈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에 애정을 빨리 갖게 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로 5월 축제를 다시 시작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축제 계획에 앞서 오월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양해를 구했고 축제에서 판매되는 총학생회 굿즈 판매수익의 일부를 재단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재혁 5·18유족회장은 “최근 조선대 학생회에서 대동제 관련 참석 부탁이 왔다”면서 “학생들의 고민을 고려해 참석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

교사 10명 중 8명 “다시 태어나면 교사 안해”

교총, 전국 1만1320명 설문

교원 침해 문제로 교직의 인기가 시들해지는 가운데 현직 교사 10명 중 2명 정도만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스승의 날(5월 15일)을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답이 19.7%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12년부터 교총이 진행한 9번 설문을 통틀어 역대 최저 수준이자 첫 10%대 기록이다.

2012년 실시된 첫 설문에서는 다시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답이 36.7%였고 2016년 52.6%로 올랐다가 2019년 39.2%, 2022년 29.9%, 2023년 20.0%로 하락세를 보였다.

현재 교직생활에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응답은 21.4%에 불과했다. 2006년 첫 설문(67.8%)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고, 같은 취지의 설문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다.

/연합뉴스

광주문화신탁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